

정현·권순우 등 테니스 스타들 광주서 기량 대결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20일부터 진월국제테니스장 세계 30개국 200여명 참가 열린 테니스 유망주 월드투어 등용문 전·현직 국가대표 사인회도 진행

광주 테니스 팬과 동호인들이 '한국 테니스 간판' 정현과 권순우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대회가 마련됐다. 해마다 이맘때 광주진월국제테니스장에서 열리는 남자프로테니스 광주오픈 챌린저대회를 통해서다.

2025 광주오픈 국제남자 챌린저 투어 테니스대회(이하 광주오픈)가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개최된다.

세계남자프로테니스협회(ATP)와 대한테니스협회(KTA)가 주최하고광주시 테니스협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회에는 세계 30개국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우승 상금과 랭킹포인트를 노린다.

올해로 8회째 맞는 '광주오픈'은 월드투어대회로 진급하기 위한 테니스 유망주들의 필수 등용문이다.

총상금 10만 달러 규모인 이번 대회 단식 우승자에게는 75점의 랭킹 포인트와 1만420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복식 1위는 4980달러의 상금이 수여된다.

때문에 세계 랭킹 100~300위 사이의 선수들에게는 그랜드슬램 진입 및 투어



100위내로 진입에 도움이 되는 대회다.

이번 대회에서 주목할만한 국내 선수로는 '한국 남자 테니스의 간판' 정현과 권순우다.

정현(ATP 단식 472위)은 올시즌 들어 국제테니스연맹(ITF) 대회에서 3차례 우승하며 예전보다 경기력과 체력이 많이 올라온 상태여서 이번 대회에 대한 팬들의 기대치가 높다. 정현은 와일드카드를 받아 단식 본선에 나선다.

권순우(ATP 440위)는 군 입대 후 부산오픈에 이어 두 번째로 프로대회에 출전한다. 앞서 지난 6일 경남 함안 공설운

동장에서 끝난 제1차 한국실업테니스연맹전 및 전국중별테니스대회에서 우승 2개와 준우승 1개를 차지하며 기세를 올렸다. 남자 단식에서 정상에 올랐고, 홍성찬·정윤성 등과 함께 출전한 단체전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정윤성과 파트너를 이뤄 나선 남자 복식에서는 준우승했다. 권순우도 와일드카드를 받아 단식 본선에 출전하고 박의성(ATP 955위)과 복식 본선에도 출전한다.

지난해 대회 단식 16강과 복식 4강에 올랐던 정윤성(ATP 976위)과 지난해 대회 복식 준우승을 차지한 이덕희(ATP

862위), 어머니의 국적을 따라 한국 선수로 활약 중인 제라드 캄파냐 리(ATP 405위), 남지성(ATP 675위) 등 한국을 대표하는 선수들이 모두 출전해 세계적인 선수들과 기량을 겨룬다.

해외 선수로는 올해 마이애미 마스터스 16강에 오른 애덤 윌튼(호주·세계 85위), 2025 인도 뱅갈루루오픈 우승자 브랜든 홀트(미국·115위), 2023 뮌헨 8강 진출자인 크리스토퍼 유뱅크스(미국·117위), 2023년 최고랭킹 37위까지 올랐던 에밀 루수부오리(핀란드·222위) 등이 참가해 관객에게 수준 높은 볼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2024년 호주오픈 주니어 챔피언인 율해 18세의 사카모토 레이(일본)의 플레이를 지켜보는 것도 관련 포인트다.

대회는 20~21일 남자 단식 예선전, 22~25일 남자 단식 본선전, 22~24일 남자 복식 본선전, 25일 남자 복식 준결승, 26일 남자 단식 준결승으로 진행된다. 경기는 단식 49경기(예선 18, 본선 31)와 복식 15경기(본선 15) 등 총 64경기가 치러진다. 대회 하이라이트인 복식 결승전은 26일 열리고 단식 결승전은 마지막 날인 27일 진행된다.

광주시테니스협회는광주오픈기간동안 생활체육 테니스 대회도 동시 개최한다. 오는 26일 여성동호인대회, 27일 MZ세대를 위한 테린이대회를 개최해 동호인들이 경기는 물론 다양한 경품추첨 등을 통해 광주오픈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시민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행사도 마련된다. 광주오픈 대회기간 중 정현, 권순우, 정윤성, 남지성, 박의성, 제라드 캄파냐리 등이 참여하는 전·현직 국가대표 사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광희 광주시테니스협회장은 "광주오픈에 국가대표를 포함 국내 우수선수들이 대거 출전해 세계 우수 선수들과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기대된다"며 "스타 선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는 기회로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동환 기자 cdstone@jilbo.com

'광주FC 홍보대사' 조빈, ACLE 응원곡 공개

오늘 낮 12시 '나의 아들이!' 발매

광주FC 홍보대사 노라조 조빈(사진)이 광주의 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엘리트(ACLE) 우승을 기원하는 응원가를 공개한다.

광주FC는 16일 낮 12시 조빈의 두 번째 ACLE 응원곡 '나의 아들이!'를 정식 음원으로 발매하고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신곡 '나의 아들이!'는 지난해 8월 공개해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았던 'Let's fly Let's shine, Gwangju!'에 이은 두 번째 ACLE 응원곡으로, ACLE 8강 진출이라는 기적을 만들어 낸 선수단과 팬들의 자부심을 일깨우고 우승을 기원하는 곡이다.

구단 홍보대사인 조빈은 지난 8일 광주 유소년팀 응원곡 '게임체인저스'를 공개하는 등 다시 한번 신곡을 공개해 광주에 대한 깊은 애정을 드러냈다.



조빈은 "이 노래는 단순한 축하를 넘어, 어떤 시련이 있어도 함께 나아가자는 응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다"며 "진심 어린 가사와 감동적인 멜로디가 선수들에게는 격려가, 팬들에게는 자부심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조빈은 16일 오후 7시 경주한수원과의 코리아컵 3라운드 홈경기 하프타임 특별 공연을 통해 응원곡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민현기 기자

또 다시 악!... KIA, 이어지는 공석에 '비상'

선발 전원 안타 등 컨디션 고조 필승조 광도규 부상 '시즌 아웃' 김도영 복귀도 제동... 치료 연장 KT·두산 등 중요한 매치 앞뒤



이거즈에게 노란불이 켜졌다. 시즌 초반부터 부상 악재로 팀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부상에서 회복하고 경기로 돌아올 것으로 기대됐던 김도영의 복귀가 늦어지고 좌완 필승조 광도규까지 시즌 아웃 됐기 때문이다.

KIA는 지난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2025 신한 SOL 뱅크 KBO리그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에서 11-5로 크게 이기며 연패를 벗어났다. 이날 KIA의 타선은 시즌 처음으로 선발 전원 안타를 기록하며 SSG 마운드를 붕괴시켰고 해당 경기로 타선에 혈이 뚫린 KIA가 상위권 도약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가 모였다.

하지만 또다시 부상이 팀의 발목을 잡았다. 지난 11일 SSG와의 홈 경기에서 8회 초 등판한 광도규는 2명의 타자만을 상대한 뒤 마운드에 올라온 코칭 스태프와 상의 끝에 교체됐다.

당시 광도규는 코칭 스태프에게 왼쪽 팔목에 이상을 느끼고 통증을 호소했고, 구단 지정병원인 선한병원에서 MRI 촬영을 진행한 결과 왼쪽 팔꿈치에 굴곡근 손상 진단을 받았으며 세종스포츠정형외과에서도 같은 진단을 받았다.

문제는 내측측부인대 재건술(토미 존



KIA타이거즈 광도규가 왼쪽 팔꿈치에 굴곡근 손상 진단을 받아 내측측부인대 재건술을 받을 예정이다. 사진은 광도규가 지난 11일 SSG 랜더스와의 홈 경기에서 역투하는 모습.

KIA타이거즈제공

수술)을 받아야 할 만큼 심각한 인대 손상이 있다는 것이다. 내측측부인대 재건술은 통상 1년에서 1년 6개월 이상의 시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한 수술로 사실상 시즌 아웃이 되는 것이다.

지난 2023년 신인드래프트에서 5라운드에서 KIA 유니폼을 입은 광도규는 지난해 1군 필승조 좌완투수로 성장했다. 71경기에서 55.2이닝을 소화했고 평균자책점 3.86의 호투를 해냈다. 특히 좌타자 피안타율 0.182로 KIA가 위기의 순간 좌타자를 상대로 넘어서야 할 때 중요한 역할을 해냈던 광도규가 시즌에서 제외된다는 것은 팀에게 큰 공백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심지어 김도영의 복귀도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지난 22일 개막전에서 좌측 햄스트링 손상 부상을 입었던 김도영도 재검진을 진행한 결과 부상 부위가 완벽히 호전되지 않았다는 진단을 받았고 약 일주일의 다시 치료에 전념한 뒤 또다시 재

검진을 받는다는 게 KIA 관계자의 설명이다.

다만 KIA는 상대로 앞두고 있는 팀들이 KT 위즈, 두산 베어스라는 점에서 중요한 시기를 보내고 있다.

15일 오전 기준 KIA는 KT와 2.5경기 차이, 두산과 경기차 없이 승률에서 밀리고 있는 만큼 상위권 도약을 위해서는 꼭 이겨야 한다. 게다가 바로 뒤이어 만나는 삼성 라이온즈와 LG 트윈스도 리그 우승을 위해서 이번에 꼭 꺾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범호 KIA타이거즈 감독은 "야구라는 게 다 모여있을 때 큰 힘이 작용하는데 그런 부분이 모자라니까 개개인적으로 더 잘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기고 그런 가운데 실책과 부상이 더 생기는 것 같다"면서 "워낙 침체돼 있는 분위기를 타개해 보려고 선수들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고 어렵지만 잘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U-17 축구대표팀, 아시안컵 4강행

승부차기 끝 타지키스탄 제압

대한민국 남자 17세 이하(U-17) 대표팀이 승부차기로 타지키스탄을 꺾고 아시안컵 준결승에 진출했다.

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U-17 대표팀은 15일(한국시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프린스 압둘라 알파이살 스타디움에서 열린 타지키스탄과의 2025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아시안컵 8강에서 정현웅(FC서울U18), 김지성(수원삼성U18)의 골로 2-2로 정규시간을 비긴 뒤 승부

차기 스코어 5-3으로 승리했다.

한국은 오는 17일 오후 11시 사우디아라비아 타이프의 오카스 스타디움에서 개최국 사우디아라비아와 아시안컵 준결승전을 치를 예정이다. 사우디는 8강에서 일본을 승부차기로 제압하고 준결승에 올랐다. 다른 준결승 대진은 우즈베키스탄과 북한의 맞대결로 성사됐다.

앞서 한국은 조별리그에서 2승 1패를 기록, C조 2위로 8강에 안착하며 대회 상위 8팀에게 주어지는 월드컵 진출권을 확보했다.

민현기 기자